

2019 국별 진출전략

페루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	5
나. 엘니뇨 재해복구 및 라니냐 현상 대비	5
다. PANAMERICAN GAME 2018 준비	6
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본격 궤도 진입	7
마. 주요 인프라사업 및 광산업 투자 재개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분석	14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나. 수출	16
다. 투자진출	17
라. 프로젝트	2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2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6
III. 진출전략	27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7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8
3. 한-페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3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8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40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1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44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 넓은 국토와 천연자원 보유

- 페루는 128.5만 km²의 면적으로 한반도의 6배 수준이고 인구는 31.5백만명으로 중남미 5위, 구리, 금, 아연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구리는 생산량이 세계 2위(1위는 칠레)로 2021년까지 1위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확대 계획

* 광물자원 세계순위(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18) : 구리(생산량2위/매장량3위), 아연(생산량 3위/매장량3위), 은(생산량3위/매장량1위), 납(생산량 4위/매장량4위), 금(생산량6위/매장량6위)

□ 지난 10년간 남미국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

- 2013년 국제원자재 가격하락과 2017년 “엘니뇨”의 피해로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2018년에는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회복세와 “엘니뇨”피해복구 및 인프라 투자사업 활기로 3.7% 성장 전망

[연도별 페루 주요 경제지표 동향]

연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성장률	%	1.0	8.5	6.5	6.0	5.8	2.4	3.3	3.9	2.5	3.7
물가상승률(연평균)	%	2.9	1.5	3.4	3.7	2.8	3.2	3.5	3.6	2.8	1.6
환율(연평균)	Sol/US\$	3.01	2.83	2.75	2.64	2.70	2.84	3.20	3.38	3.27	3.33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는 IMF 전망치임

□ 중남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유지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체 수출의 96%이상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3개국에 넘는 협정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3번째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

- 무역협정 체결현황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3개국 이상

* 다자간 협정 : WTO, MERCOSUR, ANDE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Pacific Alliance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 비준절차 중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등

-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순위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 멕시코(49), 칠레(55), 페루(58), 콜롬비아(59)

가. 시장전망

- 2018년은 엘니뇨 피해 복구사업 등 공공투자 확대, 내수시장 회복으로 인한 민간투자 활기, 농산물 등 전통품목 수출의 활기로 3.7% 성장예상
- 2019년은 수출가격 회복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과 건설과 서비스부문의 호조로 4.0% 성장 전망

□ 2019년 페루 경제성장율은 전년대비 4.0%성장 전망(상승)

- 2018년은 2017년의 '엘니뇨' 재해복구사업, PANAMERICAN GAME(2019.7~8) 준비, 10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등으로 인한 공공지출의 증가와 구리, 농수산물 등 수출가격 회복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건설 및 서비스 등 비전통 부문의 활기로 3.7% 성장 예상 (2018.4 IMF 세계 경제전망)
 - 2017년 '엘니뇨' 피해규모
2016.12~2017.5월 까지 지속된 60년만이 최악의 '엘니뇨'로 백수십명의 사망과 가옥, 도로, 교량 파손 및 손실, 농작물 피해 등 피해규모가 40억불(GDP의 1.9%)에 달함
- 2019년은 재해복구사업, PANAMERICAN GAME 준비의 본격화와 국제 농수산물,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교역 조건 개선 및 교역량 증대, 건설 및 서비스 부문의 경기호조로 4.0% 성장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구	백만 명	29.4	29.7	30.1	30.4	30.8	31.1	31.4	31.8	32.6	32.5
명목 GDP	십억 달러	148.0	168.7	189.0	197.8	203.0	192.3	195.4	215.2	231.5	246.7
1인당 명목GDP	달러	5,008	5,668	6,279	6,491	6,591	6,175	6,207	6,762	7,198	7,586
실질성장률	%	8.5	6.5	6.0	5.8	2.4	3.3	4.1	2.5	3.7	4.0
실업률	%	7.9	7.7	6.8	6.0	6.0	6.4	6.7	6.7	6.7	6.7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3.4	3.7	2.8	3.2	3.5	3.6	2.8	1.6	2.0
재정수지(GDP대비)	%	-0.2	2.0	2.3	0.9	-0.3	-2.1	-2.6	-3.2	-3.2	-
총수출	백만 달러	35,803	46,376	47,411	42,861	39,533	34,414	37,020	44,918	42,922	-
(對韓 수출)	"	1,039	1,950	1,639	1,983	1,433	1,136	1,294	2,133	1,757 (~7월)	-
총수입	"	28,815	37,152	41,018	42,356	41,042	37,331	35,132	38,652	38,911	-
(對韓 수입)	"	944	1,368	1,473	1,440	1,392	1,217	1,155	913	518 (~7월)	-
무역수지	백만 달러	6,750	9,302	6,391	-	-1,509	-2,916	1,888	6,266	4,012	-
경상수지	"	-3,782	-3,341	-5,237	-8,829	-8,925	-9,169	-5,303	-2,716	-4,016	-
환율(연평균)	PEN/US\$	2.82	2.75	2.64	2.70	2.84	3.18	3.37	3.26	3.30	3.33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1.8	71.9	117.1	96.6	36.4	81.4	65.6	65.1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4.6	76.6	119.2	92.9	78.9	82.7	68.6	61.0	61.1	-

주: * 2017년, 2018년은 EIU, World Bank, IMF 전망치(2017년 8월 기준)

자료원: 수출입은행, 페루통계청, 페루중앙은행, EIU, World Bank, IMF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 엘니뇨 재해 복구/라니냐 현상 대비, 2018 판아메리카 게임 준비, 태평양동맹의 본격 궤도진입, 주요 인프라 사업 및 광산업 투자 재개

가.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

□ 부정적 측면

- 구리, 납, 철 등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 페루의 주 수출품인 국제 광물가격 하락시 수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광산업체로부터 세수 감소, 고용 감소 우려
 - 광물 수출비중(62.8%), 광업의 세수 비중(6.5%)
- 미국과 중국 두 주요교역국의 경기에 영향을 줄 경우 전통(농수산, 광물 등 1차 산품), 비전통 부문의 수출 감소 예상
 - 對美 수출입 비중 : 수출(16%), 수입(20%)
 - 對中 수출입 비중 : 수출(26%), 수입(22%)

□ 긍정적 측면

- 페루는 미국, 중국과 FTA체결국이라 과일, 견과류 등 일부품목 수혜 예상
- 중국이 미국산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5%관세를 부과기로 120개 품목중 85개 품목은 과일, 견과류 등으로 페루의 수혜 예상품목임(18.4월)
 - (對中 수혜 예상품목) 망고, 오렌지, 레몬, 파파야,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

나. 엘니뇨 재해복구 및 라니냐 현상 대비

□ '엘니뇨' 피해 재건사업 본격 추진

- 피해현황 : 2017년 상반기 60년만의 최악의 '엘니뇨' 피해로 북부 PIURA주, 중부 리마주와 남부 ICA지역에 전례없는 호우로 113명이 사망하고 USD 40억(GDP의 1.9%)규모의 피해 발생
- 피해 재건사업
 - 페루 재건청(ARCC)는 2018년 홍수 피해를 입은 운송, 교육 및 주택 부문의 2000건 이상의 재건 사업을 위해 4300백만 누에보솔(USD1,340백만)의 투자를 Piura, La Libertad, Lambayeque, Lima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

- 강물 정화 및 하천 장벽 건설 등의 예방 사업, 교통 정비 사업 및 학교 복구 등의 재건 사업 및 제도적 역량 강화에 투입
- (우리기업 참여방안) 소규모의 다양한 인프라사업이 발주되고 있어 발주처와 협의 유사 프로젝트 들을 군으로 엮어 대규모화 하여야 하고 현지 건설사화 컨서시움 형태로 참여 필요

□ '라니냐'(La Niña)현상 전망

- 국제기관 조사에 의하면 태평양 중부 지역의 경우 약한 온난 현상이 8월 첫째주부터 9월까지, 평균 온난 현상이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속 전망
 - 현재 페루 북부 해안에는 8월 하순 저온 켈빈파와 이어지는 9월 초순 고온 켈빈파가 상륙하여 해수면과 기온 변화에 경미한 이상 현상을 가져올 전망
 - * 라니냐(La Nina) 현상 태평양 해수면의 수온이 낮아져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으로 주로 추운 계절에 발생하며 지구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침. 주로 남미 동태평양의 하층 대기 무역풍과 상층 대기의 편서풍이 강해짐으로서 발생함
- '라니냐' 영향
 - Ancash, Apurimac, Arequipa 등 기존의 영향지역에서의 농업 및 가축 피해 예상.
 - 옥수수, 쌀, 감자류, 목초지 등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포도를 비롯한 과수, 아보카도,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감귤류 등은 생산량이 증대 경우도 있음
 - 쌀, 사탕수수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작물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당 옥수수, 밀, 퀴노아 등 물 사용량이 적음 작물 재배가 권장됨
- (우리기업 유의사항) 페루 슈퍼푸드 수입 기업은 기후 변화로 생산물량 예측, 해류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적물품의 도착 일자 등 유의

다. PANAMERICAN GAME 2018 준비

□ 18회 판아메리칸게임(Juegos Panamericanos) 준비 사업 본격화

- 개요 : 제18회 범미주올림픽(2019.7.26-8.11) 개최 (페루, 리마)
 - 41개국 6000여명의 선수가 참가 예정
- 한국기업 참가 방안 : 서울올림픽(1988년), 평창동계올림픽(2018년)개최로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기업에 참여 기회 필요(시설 보안, 운영시스템 등)

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본격 궤도 진입

□ 2030년 비전 설정 : 역내 통합 강화, 글로벌화, 유대강화, 시민화

□ 가입국의 주요 혜택

- 역내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 이동
- 발효와 더불어 전체품목의 92% 무관세 적용
 - 제외된 품목은 3~17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
 - * 페루는 멕시코시장 수출품목의 96.4% 무관세 적용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역내 세관간 협력 강화
-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 한국의 태평양동맹 가입 동향

- 2013.7월 옵저버 국가로 가입, 2018.7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신청
 - * 태평양 동맹
 - 2012년 6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4개국으로 결성되어 2015.7월 협정체결로 발효. 회원국외에 한국을 포함한 55개 옵저버 국가가 있음. 총면적은 5,156,000㎡, 인구는 2.2억으로 세계 5위, GDP규모는 2조 2천억불로 8위 규모
 - 페루는 2018.7월부터 의장국 역할 수행

마. 주요 인프라사업 및 광산업 투자 재개

□ 2017-2018년은 브라질 오데브레시(Odebrecht)사 부패 스캔들과 극심한 여소야대로 인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중단 및 지연

□ 경제재정부는 2018-2019년은 6개 주요 인프라사업(77.57억불)이 경제성장 주도 예상

- (인프라부문) 리마 메트로 2호선 (53.46억불), 산마르틴(San Martin) 항만사업(2.49억불) 리마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국제공항 확장사업(10.6억불), 마헤스 시게스(Majes Sigues II) 관개사업(5.5억불), 살라베리(Salaverry) 항만 현대화 사업(2.8억불) 등
- (광산부문) 케야베코(Quellaveco) 광산 사업, 토로모초(Toromocho) 광산 사업(13억불), 후스타(Justa(Ica)) 광산 사업(13.48억불) 등 광산 확장사업에 민간 투자(총 53억불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GDP 0.4%)에 기여 예상됨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여소야대 및 정치개혁법안 발의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지속
- 재해복구 사업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PA(태평양동맹)의 본격 궤도 진입
- 2018 판아메리칸 게임 준비

가. 정치 환경

□ 여소야대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

- 2018년 3월 전 쿠친스키(Kuczynski)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인한 자진 사퇴로 새로 취임한 비스카라(Vizcarra) 대통령은 극심한 여소야대 (제1야당 민중의힘 62석, 여당 PPK 14석)로 국정 수행을 위해 야당과 협력 불가피

□ 부패 척결 사법부·정치개혁법안 국민투표 부의 (2018년말 예정)

- 비스카라 대통령은 2018. 8월 부패 척결을 위해 4대 개혁 법안 (국가사법위원회 개혁안,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재선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 (야당 민중의힘 입장) 사법부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치개혁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
 - (여당 PPK 입장) 사법부 및 정치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동시에 처리
- 동 개혁안 통과시 정국 요동 가능성

나. 경제 환경

□ 내수(內需) 시장 확대

- 2018년에 이어 '엘니뇨'재해 복구사업의 가속화, 새로운 광산프로젝트 투자 확대, 인프라, 탄화수소 산업, 소매유통, 부동산, 관광산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예상

- 내수시장 : (2017년)1.4% → (2018년)4.2% → (2019년) 4.5%
- * 공공지출 : (2017년)-0.5% → (2018년)6.7% → (2019년)4.2%
- * 민간지출 : (2017년) 2.0% → (2018년)3.7% → (2019년)4.9%

[2018-2019 민간부문 투자계획]

(단위:백만달러)

분야	투자액	프로젝트수
광산	7,364	34
인프라	3,850	25
탄화수소 산업	1,875	15
에너지	890	21
제조업	802	13
기타	4,066	67
합계	18,847	175

자료원: 페루중앙은행

□ 견고한 경제성장 지속

- ‘엘니뇨’ 복구사업 활기와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광물가격 호조, 농수산물, 광물 등 전통 품목의 수출호조로 2018년, 2019년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전망

[연도별 페루 GDP성장률]

연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성장률	%	6.0	5.8	2.4	3.3	3.9	2.5	3.7	4.0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는 IMF 전망치임

□ 대외교역의 지속 호조

-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 광물시세 회복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로 수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 개선 및 교역량 증가

[페루 대외교역량 현황]

(단위: 백만달러, %)

	GDP비중 (2017)	2017	*2018	*2019
수출(미백만불, 증감율%)	24.3%	44,918(7.2)	52,058(15.9)	55,181(6.0)
수입(미백만불, 증감율%)	22.1%	38,652(4.0)	43,033(11.3)	45,170(5.0)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는 전망치임

□ 인플레이션 및 환율

- 2018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 물가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재해로부터의 원상복구와 약간의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 모두 안정세 예상

[페루 인플레이션 및 환율]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물가상승률(연평균)	%	3.7	2.8	3.2	3.5	3.6	1.4	2.2	2.0
환율(연평균)	Sol/US\$	2.638	2.702	2.839	3.203	3.379	3.27	3.30	3.33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전망치임

다. 산업 환경

□ 광산업

- 2013년을 정점으로 국제광물가격하락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투자가 감소하여 2016년도 투자규모는 42.5억불로 감소함. 2017-2018년은 국제 광물가격 회복과 더불어 투자 증가 전망
 - (세계 생산량 순위) : 구리, 아연(2위), 은(3위), 납, 몰리브덴, 주석(4위), 수은(5위), 금(6위)
 - (구리) 2018년 생산량이 239만톤(mnt)를 기록하여 세계 2위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여 3.7백만톤에 달함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

[연도별 광업분야 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액	8,504	9,924	8,878	7,525	4,251	5,658

자료원: 페루에너지광산부, BMI, *2017년은 전망치

- 2018-2019년 광산업 투자 계획
 - 케야베코(Quellaveco) 광산 사업, 토로모초(Toromocho) 광산 사업(13억불), 후스타(Justa(Ica)) 광산 사업(13.48억불) 등 광산 확장사업에 민간 투자(총 53억불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GDP 0.4%)에 기여 예상됨

[프로젝트별 규모]

프로젝트명	투자규모(USD)	생산규모
케야베코(Quellaveco) 광산 사업	53억불	구리 330,000TMF
토로모초(Toromocho) 광산 사업	13억불	구리 75,000TMF
후스타(Justa(Ica)) 광산 사업	13.48억불	구리 110,000TMF

자료원: MINEM (광물자원에너지부) * TMF (Metric Ton of Fine)

□ 건설·인프라산업

- ‘엘니뇨’ 재해 복구사업
 - 북부 재건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2017년 6월~2018년 9월까지 약 46억불(약 14억불)을 13개 주정부에 배정하였는데 2021년까지 배정된 복구사업 예산 총 255.6억불(약 77.5억불)의 18%에 해당되는 액수임
 - 2018년 지방정부로 전달된 예산 가운데 약 60%는 도로, 학교 및 병원 등 인프라 복구에 사용되었으며

36%는 재해 예방작업 등에 집행됨

- 2018년 재건 항목으로 예정된 예산은 약 40억솔(약 12억불)

○ 인프라 사업 : 2018-2019년은 6개 주요 인프라사업(77.57억불)이 경제성장 주도 예상

- 주요사업 : 리마 메트로 2호선 (53.46억불), 산마르틴(San Martin) 항만사업(2.49억불) 리마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국제 공항 확장사업(10.6억불), 마헤스 시게스(Majes Sigues II) 관개사업 (5.5억불), 살라베리(Salaverry) 항만 현대화 사업(2.75억불) 등

- 기타사업 : 수처리 사업(티티카카 호수 사업, 리마 식수공급 사업 등)과 북부 및 리마 수도권 지역 위주로 병원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중점 추진

- (우리기업 관심사업) 리마 메트로 3, 4호선 사업 : 마스터 플랜수립 사업이 2018년말 발주하고 이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19년 이후 보다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임

○ 2018-2020년 투자계획 (110억달러 이상)

분야	금액(백만달러)	비중(%)
교통	4432	40
광산업	2500	23
보건	1122	10
수처리 및 위생	1096	9
에너지	920	8
관개	399	4
정보통신	359	3
교육	329	3

자료원: 페루투자청(PROINVERSION)

□ 자동차 산업

○ 시장동향

- 2013~2016년 페루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전년 대비 6.04% 판매량이 상승한 180,281대 판매되었으며 2018년 들어서는 새로운 환경 기준 적용(EURO4) 등으로 1~8월 판매량이 103,774대로 전년동기 대비 4.6%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도에는 4%대 경제성장율이 예상됨에 따라 차량 판매로 증가할 전망

[페루 자동차 판매량 추이]

(단위: 대)

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8
승용차	169,490	164,689	157,546	153,876	163,668	75,456
상용차	23,190	19,224	15,540	16,144	16,613	28,288
총계	192,680	183,913	173,086	170,020	180,281	103,744
성장률(%)	-	△4.55%	△5.89%	△1.77%	6.04%	△4.6%

자료원: 페루자동차 산업협회

○ 브랜드별 동향

- 현대·기아차, 도요타 등 아시아 기업들이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차 점유율 추이의 경우 2015~2017년 사이 현대차는 8.1% 상승한 반면 기아차는 3.2% 감소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회사명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p)
도요타(Toyota)	19.2	18.8	18.1	△7.7
현대자동차(Hyundai)	14.7	16.7	15.8	△8.1
기아자동차(Kia)	14.3	13.4	12.5	△3.2
쉐보레(Chevrolet)	6.3	4.8	6.3	△3.9
스즈키(Suzuki)	6	6	6.2	△17.5
니싼(Nissan)	8.5	7.6	5.9	△22.7
마쯔다(Mazda)	2.7	2.7	3.2	△9.5
폭스바겐(Volkswagen)	2.5	2.4	2.7	△15.7

자료원: 페루자동차 산업협회

○ 향후 전망 및 진출전략

- 페루는 다양한 브랜드 시장으로 한국산 차량의 입지는 높으며 중저가에서 고급 차량까지 모두 수요가 탄탄함. 아울러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SUV와 같은 규모가 큰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큰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임. 정부 차원 도로 개선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차량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됨
- 페루는 자국 차량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도요타 등 세계적인 브랜드 및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차량과의 경쟁이 관건
- 페루 경제 회복으로 인한 소득 수준 상승 및 유로 IV 정책 도입 등으로 기존 세단 위주의 시장에서 SUV 위주의 시장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페루 내 차량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모두 마련되었으므로, 몇 년 이내에 페루도 차량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8년~2019년 페루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제약 산업

○ 시장동향

- 페루 제약 산업은 연간 GDP의 9월 1,800만 누에보 솔(약 2억 9,000만 달러)을 창출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동 시장은 8-9%의 성장을 이루었음. 아울러 페루는 저비용 및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며, 다국적 투자를 장려하고 지역 및 무역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2017년 페루 정부는 생물학적 등기성에 기초한 제네릭 의약품 규제 및 의료 혜택 수혜범위 확장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했으며,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함

- 브랜드별 동향
 - 지난 10년간 페루 내 약국 체인의 확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브랜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이 매우 활발하였음. 주요 민간 의약품 판매처는 약국 체인점임. 컨설팅 회사 IMS Health에 자료 의거, 지난 8년간 InkaFarma 및 MiFarma가 내수 시장의 63%를 차지함. 페루 통계청 (INEI)에 따르면, 페루 내 의약품 수요는 주로 가정(62.4%) 및 병원, 클리닉, 보건소 등 공공 보건 부문(13.1%)에서 발생함
- 향후 전망 및 진출전략
 - 페루 내 중상류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약품이 글로벌 브랜드이며 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중하위계층은 제네릭 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임
 - 등록절차 간소화로 수출시 필요한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등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진출전략) 한국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가 현지업체 내에서 좋게 형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라. 정책·규제 환경

□ 중남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유지

- 양자간 FTA를 통해 전체 수출의 96%이상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3개국에 넘는 협정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3번째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
- 무역협정 체결현황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3개국 이상
 - * 다자간 협정 : WTO, MERCOSUR, ANDE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Pacific Alliance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 * 비준절차 중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
 - ** TPP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을 체결(2018.3.8.)하여 재탄생하였으며 실제 발효는 2019년 이루어질 전망
-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순위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 멕시코(49), 칠레(55), 페루(58), 콜롬비아(59)

□ 비스카라 신정부의 시장개방 및 국제협력강화 정책 지속

- (비스카라 대통령 취임) 쿠진스키 전대통령이 브라질 '오데브레시(Odebrecht)'사 부패 스캔들 연루로 2018.3.21.일 하여로 3.23일 취임한 비스카라 대통령은 Pro-Business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소야대로 인해 야당과 협력이 불가피함

- (주요 무역파트너와 협력강화) 주요 무역파트너인 미국 및 중국과 결속을 강화해나가고 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칠레와는 다소의 정치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 (시장개방정책 지속) 대외 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개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터키, 인도 등과의 FTA 협상 마무리 및 TPP 조기 비준 노력 등 예상

2. 시장분석

- 넓은 국토와 천연자원 보유로 시장 가능성 높음
 - 구리 등 천연 광물 자원을 이용한 사업 개발
- 지난 10년간 남미국가 중 갖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룩
 - 원자재 가격 회복 및 엘니뇨 피해 복구 사업 활기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넓은 국토와 천연자원 보유

- 페루는 128.5만 km²의 면적으로 한반도의 6배 수준이고 인구는 31.5백만명으로 중남미 5위. 구리, 금, 아연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구리는 생산량이 세계 2위(1위는 칠레)로 2021년까지 1위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확대 계획

* 광물자원 세계순위(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18) : 구리(생산량2위/매장량3위), 아연(생산량 3위/매장량3위), 은(생산량3위/매장량1위), 납(생산량 4위/매장량4위), 금(생산량6위/매장량6위)

[페루 자원 보유 현황(2018.9)]

자원 (단위)	매장량	세계 비중(%)	세계 순위	생산량	세계 비중(%)	세계 순위
동 (매장량:만 톤/생산량:만 톤)	8,100	11	3	239	12	2
아연 (매장량:만 톤/생산량:톤)	28	11.4	3	130	1,400	3
은 (매장량:만 톤/생산량:톤)	9.3	21	1	4,500	15.2	3
납 (매장량:만 톤/생산량:만 톤)	6,000	7.5	4	300	6.4	4
금 (매장량:톤/생산량:톤)	2,300	5.0	6	155	4	6

자료원: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 석유, 천연가스

2.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8 (2018.9월)

□ 지난 10년간 남미국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

- 2013년 국제원자재 가격하락과 2017년 ‘엘니뇨’의 피해로 경제성장율이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2018년에는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회복세와 ‘엘니뇨’피해복구 및 인프라 투자사업 활기로 3.7% 성장

[연도별 페루 주요 경제지표 동향]

연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성장률	%	1.0	8.5	6.5	6.0	5.8	2.4	3.3	3.9	2.5	3.7
물가상승률(연평균)	%	2.9	1.5	3.4	3.7	2.8	3.2	3.5	3.6	2.8	1.6
환율(연평균)	Sol/US\$	3.01	2.83	2.75	2.64	2.70	2.84	3.20	3.38	3.27	3.33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는 IMF 전망치임

- 2019년에는 ‘엘니뇨’복구사업이 본격화되고 진입하고 브라질 오데브레시사 부패스캔들로 인해 중단 및 연기되었던 인프라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4%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중남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장

- 외국인 투자에 매력적인 페루시장 주요 특징
 - 높은 수입의존도, 수도권 인구 1000만 명, 신흥 중산층의 부상
 - 자유로운 자본시장, 중남미 지리적 교통 중심
 -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항상 시장친화적인 정책 유지
- 투자 유망분야
 - (제조업) 지난 10년간 연평균 4% 성장했음. 유망분야로는 시멘트, 식음료, 섬유직물산업 등이 있음
 - (농업) 세계 150여개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등 매우 활발함. 유망 분야로는 사탕수수,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아티초크, 포도, 아보카도 등이 있음
 - (관광) 마추픽추 등 다양한 관광명소와 최적의 자연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리마주는 세계 주요 미식 관광지로 부상함. 2021년 관광객 700만명을 유치목표
 - (광업) 세계 매장량으로 금 6위, 납 4위, 동 3위, 몰리브덴 4위, 셀레늄 4위, 아연 3위, 은 1위 등 다양한 희토류 보유국으로서 매력적인 광업 투자지
 - (교통) 라틴아메리카와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인프라 근대화 등 31개 프로젝트에 약 141억 달러 투자

나. 수출

□ 교역 동향

연도	對페루 수출		對페루 수입		수지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3	1,440	-2.2	1,983	21.0	-543
2014	1,392	-3.4	1,433	-27.7	-41
2015	1,217	-12.5	1,135	-20.7	82
2016	1,155	-5.1	1,294	14.0	-140
2017	913	-20.9	2,133	64.8	-1,220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 수출입 동향

- 페루 무역수지는 2017년 연간 62억6천 6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43억 7천 8백만 달러 규모 성장
- 페루 수출대상국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의 나라들이 주요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3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며 페루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며, 이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페루 수입대상국 4위 (2017년)
- 페루 주요 수입 대상국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및 미대륙 국가로 구성되어있음.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인 수입국가로 양국의 수입 점유율은 전체의 약 43%에 달함
- 페루 주요 수출품은 광물로 동광과 금이 대표적임. 2018년 6월 기준 동광과 금의 수출 점유율은 각각 28.0%, 15.5%로, 지속적으로 두 품목의 수출의존도는 증가하는 추세임
- 페루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로 원유 및 非 원유 상품을 포함함. 원유를 제외한 석유 및 역청유의 경우 등유가 대표적인 수입 제품임

□ 페루 對세계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입 국가(2017년)
 - 수출 10개국 : 중국, 미국, 스위스, 한국(4위), 인도, 일본,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칠레
 - 수입 10개국 : 중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 * 한국(12위)
- 주요 수출입 품목(HS코드)
 - 수출품 : 비가공 금제품(7108), 구리광석 및 정광(2603), 정제한 동(7403), 아연광과 그 정광(2608), 연광과 그 정광(2607)
 - 수입품 : 석유 및 역청유(2709,2710), 전화기(8517), 승용자동차와 기타차량(8703), 옥수수(1005)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2017년 페루의 대중국 수입액은 84.0억불로 전체 수입시장에서 22.3%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주 수입 품목은 섬유류 제품 및 부자재, 철강제품, 화학비료, 전력기자재 등임. 수출액은 115.8억불로 전체 수출시장에서 26.3%의 비중을 차지함. 주요 수출품은 구리, 아연, 금속류, 포도 및 견과류, 원유 등임
- (일본) 2017년 대 일본 수입액은 9.6억불로 수입시장의 2.6%를 점하고 있으며 주 수입품은 석유 제품, 전기모터 및 발전기, 트랙터, 전기제품 등이며 수출은 18.8억불로 전체 수출에서 4.3%를 점하고 있으며 주 수출품은 철강제품, 견과류, 어류 및 가공어류, 농산물 등임

다. 투자진출

□ 최근 투자진출 동향

[외국인직접투자 유입(2012~2017)]

(단위: 억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입금액	119.2	93.0	78.8	82.7	68.6	67.7
(전년 대비 증감률)	55.5%	-22.0%	-15.2%	4.9%	-17.0%	-1.3%

자료원: 유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CECLAC)

- 2013년 기준 중남미 전체 유입액의 5.4%에 해당하는 93억 달러(중남미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였으나, 2014~15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2016년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약 69억달러로 감소세에 있으며 2017년 역시 소폭의 하락(-1.3%)을 기록함
- 2018년은 주요 광산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국제 광물 시세가 회복,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 통상 마찰,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변수가 남아 있음
- 2017년 기준 주요 투자국은 스페인, 영국, 미국, 칠레 등이며, 주요 투자대상 산업은 광산업, 통신, 금융, 에너지, 제조업 등임
 - 페루로 유입되는 직접투자는 대부분 광산업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15.7억불이 유입되어 작년 동기 대비 34.4%의 증가를 보였으며 주요 금융기관들에 의하면 2018년 약 46억불, 내년 52억불의 투자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인 FITCH, S&P, MOODY'S 등은 지난 수년 간 페루의 경제를 안정 및 긍정으로 평가하며 투자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 간에 칠레에 이어 멕시코와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음

[페루 국가신용등급]

구분	2016	2017	2018
S&P	BBB+/Stable	BBB+/Stable	BBB+/Stable
Moody's	A3/Stable	A2/Positive	A3/Stable
Fitch	BBB+/Stable	BBB+/Stable	BBB+

자료원: 페루 기획경제부(MEF)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삼성, LG, 포스코, 대우 등 대기업들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사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 유통망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시장 선두 그룹에 속해 있음
- 농목축업, 수산업 및 광산업 등 1차 산업과 관광, 유통 및 금융업 등 3차 서비스 산업이 강점을 보이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현지 산업 구조상 국내 기업이 현지에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
 - 현지 거주 교민들이 투자, 설립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유통업, 임대업, 수산가공업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 판매에 집중하던 90년대 ~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현재 저가 품목 위주로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SK 이노베이션이 페루 남동부 카미세아 가스 광구에 투자,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 아연 역시 현지법인 설립과 투자를 통해 광산업을 운영하고 있음

□ 투자 관련 주요 경쟁국

- 2017년 말 기준 페루 내 총 외국인 투자액은 250억불 규모로 파악되며, 광산업(56.5억불), 통신(53.2억불), 금융(47억불), 에너지(34.5억불), 기타 산업(32억불)로 집계됨
 - 주요 투자국들은 스페인(45.2억불), 영국(43.4억불), 칠레(34억불), 미국(31.9억불)임
- 주요 신규 투자는 광업 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래 영국 기업인 Anglo American 광업사가 페루의 Quellaveco 동광 개발 프로젝트에 55억불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였음
- 중남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 역시 페루 구리 생산의 60%인 연간 약 70억불을 수입하며 자원 확보 차원에서 광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페루 광산업의 약 35%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광산개발지역 주민들의 개발 반대 여론 완화를 목적으로 페루 정부와 환경 관련 협약에 서명하는 등 다양한 접근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향후 3년간 페루의 광산, 에너지, 통신, 건설, 인프라 및 금융 분야에 PPP 프로젝트를 포함, 100억불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현지 재계에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중장비, 자동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은 미쓰비시, 미쓰이 등의 상사들이 광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사 계열 은행 지점을 페루에 개설하고 Anglo American과 함께 Quellaveco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쓰비시는 현재 18%대 지분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자원 분야 투자에 적극적이며 Sumitomo Metal Minging은 페루 남부 Arequipa에 위치한 Cerro Verde 광산에 투자하고 있음

□ 투자진출 진입장벽

- 페루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처우는 내국인 대우를 기본으로 하며 행정상의 지연 등 문제를 제외하면 특별한 장벽은 없음
 - 중남미 역내 국가들 일부가 경제위기(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정국혼란, 치안 및 사회불안 등 부정적 이미지가 대두되고 있으나 페루는 안정적인 환율과 경제상황으로 꾸준한 외국자본 유입을 보이고 있음
 - 광산 등에 투자된 자본의 수익실현 후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 투자환경 관련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함

□ 투자 성공사례

- 도화 엔지니어링, 187억 규모 페루 지하철 시공감리사업 수주
 - 도화 엔지니어링은 187억원 규모 페루 리마 메트로 2호선 시공감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2015.3.23. 공시했다. 이는 2017년 매출액의 8.14%에 해당하는 규모임
 - 도화 엔지니어링 측은 '상기 프로젝트는 당사를 포함해 부산교통공사, Cesel(페루), FSDI(중국), FSDI Xian(중국)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며 '당사의 지분은 15%'라고 밝혔음
 - 이번 시공감리사업 계약기간은 설계 검토 및 감리 62개월, 시운전 3개월, 하자보증 6개월 등 총 71개월
 - * 자료원: 2015.3.23. 이데일리 뉴스
 - 동 사업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현지 철도분야 및 토목분야 다수의 컨설팅 사업을 추가 수주하는 등 기업 이미지 제고와 기술 전파에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현지기업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 사업에 진출 발판을 확보, 유사 모델로 추가사업 수주 성공적 평가

□ 투자 유형

- 민간주도 자기조달 투자 프로젝트(IPA, Iniciativas Privadas Autosostenibles)
 - 페루 정부가 PPP형태의 사업을 지칭하여 일컫는 명칭
 - 정부의 개입 또는 참여가 5% 미만으로 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중앙, 주 또는 지방정부 관할 민간 투자진흥기관(OPIP, Organo Promotor de la Inversion Privada)에 제출해야 함

- 전액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이 형태의 사업은 프로젝트의 사회적 혜택이 발생하는 관할지역 지자체나 해당 기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됨
- 민간주도 민관공동투자 프로젝트 (IPC, Iniciativas Privadas Cofinanciadas)
 - 민간이 주도하여 사업을 제안하지만, 정부가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부지 제공, 지불 보증, 보조금 지급이나 지분 참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는 사업 형태를 IPC라고 하며, 공익과 사회적 혜택이 뛰어나다고 판단될 시 가능함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을 통해서 진행되며 인프라, 공공 서비스, 응용연구 및 기술 혁신 등 폭 넓은 분야에 해당됨
 - 사업형태는 양허권(Concession), 운영권, 동업, 조인트 벤처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IPC 사업은 사업권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규모가 10,000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을 초과해야 함
 - 운영과 유지보수만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역시 10,000 UIT를 초과하는 규모의 사업이어야 함. 전액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는 IPA와는 달리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IPC 프로젝트는 승인 과정이 더 까다롭고 이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 납세기준액 : 매년 액수가 조정되며 2017년 기준 4,050솔, 미화 약 1,250불
- 페루공공투자시스템 (SNIP, Sistema Nacional de Inversion Publica, 현재 Invierte.pe로 개정 중)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
 - SNIP(시스템 효율 개선을 위해 Invierte.pe로 시스템 개선 진행 중)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공공투자프로젝트를 인증하는 국가행정시스템임
 - 민간주도와 공공투자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는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구성, 운영됨
 - * 결정주체(Organo Resolutivo) : 최고의사결정권자(지자체장, 주지사, 각 부처 등)
 - * 사업조성팀(UF, Unidades Formuladoras) : 사전투자평가 작성 책임 기관. 각 부처,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지정되어 해당 투자기획실에 등록되었다면 어떠한 기관이라도 UF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공공투자프로젝트 들은 UF에 의해 기준 포맷에 맞추어SNIP의 프로젝트 은행에 등록됨
 - * 투자기획실(OPI, Oficina de Programacion e Inversiones) : 공공투자프로젝트(PIP, Proyectos de Inversion Publica) 평가 및 공표 책임부서. PIP 평가 및 승인 후 기획재정부에 보고. 각OPI 관할 분야에 따라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은행이 평가 책임기관을 지정하며 해당OPI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공공투자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공표함
 - * 사업집행팀(UE, Unidades Ejecutoras) : 정부의 다양한 기관에 속한 PIP의 시행, 운영, 유지보수 및 사후 평가 책임기관

□ 투자 절차

○ 투자 사전단계

1)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단계

- 사업 규모 2천만 솔 이하(약 6백만 불) 경우 평가 개요(study profile) 작성
- 사업 규모 2천만 솔 이상 경우 타당성 조사(F/S) 시행

2) 요구 정보

-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업 일자 미확정(1, 2, 3차 사업년도 형식으로 사업 스케줄 작성)
- PPP 또는 정부투자 여부 사업형태 평가 (모든PPP는 SNIP를 거치고 ProInversion을 통해서 진행)
- 예상 사업 규모, 차후 변경 가능
- 사업성 승인 및 공표
- 집행 기관 및 공공 자원 조달 기관 선정
 - * 공공부채로 재원이 확보되는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성 승인은 공공분야장기계획국(DGPM, Direccion General de Programacion Multianual)이 담당함

○ 투자 단계

1) 최종평가서 및 기술심의서

- 기술심의서에는 프로젝트의 확정적 정보와 모든 기술의 범위(technical scope)가 서술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2) 프로젝트 집행

- 기술심의서의 사업금액으로 정부조달전자시스템(SEACE, Sistema Electronico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통한 소집 공고 게재
- 투자사전단계에서는 사업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이 단계에서 투자형태 최종 결정
- 기술심의서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구체적 정보 확인 가능
 - * 필요한 경우, UE(사업집행팀)가 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 기관에 대하여 프로젝트 집행, 종료 및 이전 관련 세부 평가 작성을 책임짐

○ 투자 사후단계

1) 운영 및 유지보수

- 프로젝트 시행 모니터링: 본 단계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기관이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을 제고하므로 프로젝트 기획 당시 의도된 사업성을 입증해야 함

2) 사후 평가

-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 및 영향 평가. 프로젝트 집행을 담당하는 UE에 사후평가의 책임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제3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음

- 유의 사항
 - 투자사전단계에서 프로젝트 사업성을 승인 받았더라도 반드시 시행할 의무는 없음
 - 2년이 넘어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는 투자사전단계부터 재설계되어야 함
 - 모든 PPP는 심의서나 사업타당성 단계에서 SNIP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에 따라 진행됨

라. 프로젝트

□ 2018년 프로젝트 분야 현황 및 2019년 전망

- 비스카라 정권 관심 분야 : 광산투자 유입 확대, 재건사업, 철도사업 중점 집행
 - 북부 엘니뇨 피해 복구 사업집행이 더디다는 평가 하에 내년에는 예산 집행에 더욱 가속을 낼 것으로 보임
 - 의료 체계 역량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수의 국립병원 및 근로자건강보험(EsSalud) 소속 병원 사업 발주 계획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 : ‘엘 니뇨’ 피해 재건에 국가 역량 집중
- 전국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및 철도망 사업 중점 집행
 - 리마 메트로 3, 4호선 마스터 플랜 발주 및 본 사업 진행
 - 리마 근교 철도 : 리마 북부 ~ 바랑카(Barranca) 구간 약 200여km 및 리마 남부 ~ 이카(Ica) 약 400여km 구간 사업 가운데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남부 구간 사업 추진
- 국가 아젠다 관련 프로젝트 : 2019 판아메리칸 게임, 독립 200주년 기념 국가사업(2017~2021)

□ 정부 프로젝트 분야

- 수처리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북부 재건사업 중점 추진 밝힘
 - 투자청에서 올 상반기 EOI를 마감한 티티카카호 폐수처리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리마 상수원 사업을 발주할 계획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사업 확대를 자제하고 주로 PPP 사업과 세금납부대체사업(Obras por Impuesto) 위주로 추진
- 페루투자청(Proinversion) 진행 주요 프로젝트
 -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 : La Nina-Pira 구간 변전소 및 송전선 시설 확장사업(2019년 상반기),

Prinnas-Tumbes 구간 변전소 및 송전선 시설 확장 사업(2019년 상반기) 등 북부 지역 다수 시설 개선 사업 발주 예정

- 수처리 : 티티카카호 오수처리 시스템 사업(2.6억불), 리마 식수공급사업(6억불), Puerto Maldonado 지역 하수처리시설 사업(규모 미정) 등
- 보건의료 : Piura 및 Chimbote 지역 고복합 국민건강보험(EsSalud) 의료센터 2개소(2.5억불), Hipolito Unanue 국립병원(2.5억불), 국군중앙병원(1.1억불) 등
- 교통·인프라 : 산맥횡단국도 제 4구간(4.6억불), Huancayo-Huancavelica 철도사업(2.35억불), San Juan de Marcona 항만사업(5.8억불), 리마순환도로(20.5억불) 등

□ 친체로 공항 G2G 형태 사업 추진

- (EPC 정부공공사업) 10월 4일 MTC 교통양허총국장과 장관 및 차관보좌관이 참석한 면담에서 동 사업이 PPP가 아닌 G2G 계약 형태의 EPC 사업이 될 것으로 알려짐
- 약 6억불 규모, 2019년 3분기 착공 후 2021년 중반까지 상당부분 진척 등 다수 조건 언급
- 페-영 간 2018 판아메리칸 게임 조직사업 G2G 계약을 참조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 시점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터키 및 우리나라가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 주요 거점 지자체 및 도시별 관심 프로젝트 현황

- 리마시 상하수도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현황
- 리마시 상수도 공급 건설 프로젝트 : 리마 및 후닌(Junin)지역 식수공급 목적 댐, 터널, 상수처리장, 수도관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종합 프로젝트. 6억불(민간자본) 규모, 양허기간은 30년으로 2019년 상반기 입찰 예정
- 리마 메트로 3, 4호선 프로젝트 : 각 사업 약 35 ~ 50억 불의 대규모 지하철 프로젝트. 두 사업 모두 양허기간 30년, 정부 공동투자이며 3호선과 4호선 2019년 공고, 2020년 발주 예상, 두 사업 관련 신규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진행 중
- 리마 - 이카 남부 철도 프로젝트 : 리마 근교 철도사업 일환으로 리마 남부 구간 약 400여km 사업으로 2018년 연말 10월 중 사업참여희망자 모집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신속 추진 전망

□ 국가 아젠다 관련 프로젝트

- 판 아메리칸 게임 건설 사업 (보안, 경비 분야 중점)
- 경기장, 선수촌 등 건물 인프라 사업은 발주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서비스 및 장비 납품 사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UNOPS를 통해서 입찰 예정
- 보안 경비 분야 관련 긴급 구매 물품(드론, 보안장비) 등은 현재 필요 장비 리스트 작성 중이며 연말 내 완료될 예정

- 북부재건사업 : 엘니뇨 현상으로 2017년 초 큰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의 재건사업 중점 추진을 발표한 정부는 2018년 일부 예산 투입에 이어 2019년 내 10억불 내외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사업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는 수십 ~ 수백만 불 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발주될 계획에 따라 우리 기업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유망 분야로는 중장비 및 건축, 전기 자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8-2019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국가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발주규모 (백만불)	단계	일정
페루	7개주 브로드밴드망 사업 (Tacna, Puno, Moquegua, Junin, Ica, Amazonas)	교통통신부	총 430 (7개 사업 개별 발주)	입찰	2018.9 공고, 2018.12사업자 선정
페루	리마 - 이카 남부철도	교통통신부	미정	사전조사	2018.10 사업희망자 모집 공고
페루	리마 메트로 지하철 3호선 사업	투자청, 교통통신부	3,500	F/S	2019 공고
페루	리마 메트로 지하철 4호선 사업	투자청, 교통통신부	5,000	F/S	2019 공고
페루	Piura 공항 개보수 사업	ADP (공항사업자 컨소시엄)	43.5	PQ	2018 말 공고 예정, 지연 발생중
페루	Chiclayo 공항 개보수 사업	ADP (공항사업자 컨소시엄)	43	PQ	상동
페루	911 통합신고센터 사업	교통통신부	95	F/S	2019 상반기 공고
페루	Chimbote 고복합병원 프로젝트	투자청 보건공단 (Essalud)	110	PQ	2018.하반기
페루	Piura 고복합병원 프로젝트	투자청 보건공단 (Essalud)	144	PQ	2018.하반기

자료원: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및 무역관 보유 자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역제

가. 교역

□ 한국과 FTA의 버팀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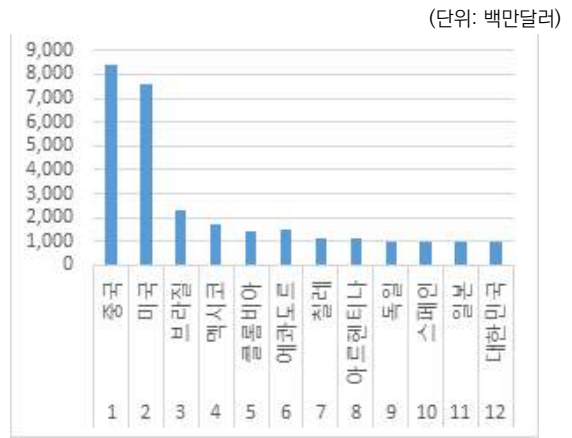
- 2017년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액은 9.67억불을 기록 페루 전체 수입시장의 2.6%를 점하여 12위를 차지함. 대 페루 수입은 21.5억불로 페루 전체 수출시장에서 4.7%를 점하여 중국, 미국, 스위스에 이어 4위를 차지하여 한국은 페루의 주요 교역국 위치 유지
- 페루는 우리 주요 경쟁국들(미국, 중국, 일본)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고 전세계 50여개국과 FTA를 체결중임

[페루 국별수출 현황(2017)]



자료원: 페루 관세청

[페루의 국별 수입현황(2017)]



자료원: 페루 관세청

나. 투자

□ 대 페루 직접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대 페루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12월말 누계 기준 62건, 22억 달러를 기록함. 광업에 대한 투자가 23.7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 (96.8%)을 차지하고 있음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투자의 대부분이 원자재에 몰려있음
 - 다만, 페루가 저가선호시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투자 가능성이 부각되지만, 제조업 관련 인력, 인프라, 유통 구조,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페루 정부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국토균형발전 및 빈곤층 감소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철도, 도로), 수자원(상하수 및 오수처리 시설), 에너지 개발 및 송배전, 의료시스템·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PPP 민관공동투자 또는 민간주도투자 수익사업으로 진행
 - 수익 ~ 수십억 불에 달하는 사업들에 투자 사업으로 접근하여 프로젝트 수주 후 운영까지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진행 필요
 - 원활한 수주 활동 및 시공, 운영을 위해 페루 기업과 외국 기업을 아우르는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을 추천

□ 우리 기업 투자 성공 사례

- 한국의 주요 비철금속 기업인 LS니코동제련은 페루 광산기업 민수르와 10억불 규모의 에 약 10억불 규모의 '미나 후스타 동광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2018.9.11.)

- 계약 기간 총 10년, 계약 규모는 56만 톤으로 매년 5~6만 톤의 동정광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됨
- 미나 후스타에서 생산되는 동정광은 순도 약 40%로 일반 광산의 2배에 가까운 순도를 가져 높은 생산효율이 기대됨
- 동 협약으로 인한 부가 수익으로 상기 광산 인근에 세워질 습식제련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동 총 15.6만 톤 판매 권리도 획득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미나 후스타 프로젝트에 2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금융지원 제공을 결정한 바 있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통상산업협력 KSP 사업 지원 - 페루 국영조선소(SIMA)

- 페루 조선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국영조선소가 계획하고 있는 조선소 시설 현대화 및 확장 사업 관련 KSP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수요 조사 지원
 - (산업협력)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노하우 전수, 관련 산업 동반 발전 기대
 - (진출유망분야) 향후 발주될 드라이독 확장 사업, 시설 구입 사업 참여
 - (방산) 페루 해군 프리깃함(6척, 24억불) 사업 참여 모색

□ 스마트 시티 홍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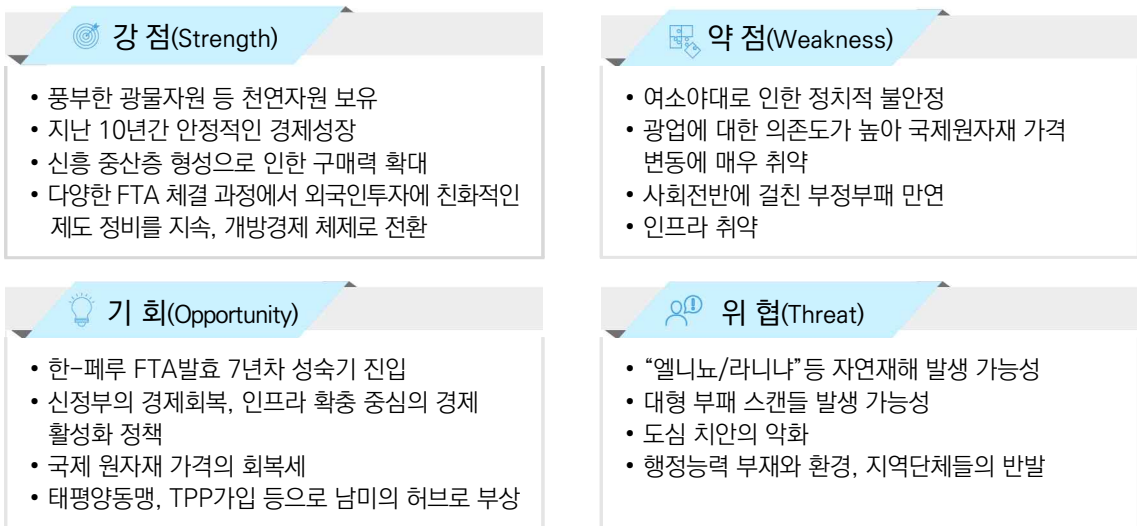
- 공관이 시행 중인 전자정부 및 스마트 시티 관련 협력 사업에 발맞추어 현지 유력 지자체 및 관할지 볼리비아에 스마트 시티 사업 홍보 계획
 - (플랫폼 및 장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 현지화 및 제반 기기 및 장비 홍보
 - (현지 치안개선) 페루 및 볼리비아 정부와 국민들의 우선 관심사인 치안 개선에 스마트 시티를 통한 개선안 제공

III 진출전략

- 양국간 투자 및 산업협력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 확대
- 재난복구 재건, 주요 인프라사업에 우리기업의 적극적 참여
- 심화단계인 양국간 FTA 적극 활용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페루 지역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증하는 중산층 소비자 공략 • G2G 등 정부조달 사업진출 확대 	생활소비재 유통시장, 보건시장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 • 현지 제조업, 서비스분야 투자진출 확대 	현지 M&A, 합작투자, 투자진출지원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단계 진입 양국간 FTA 활용 • 양국간 투자 및 산업협력 강화 	KSP 등 양국 협력 사업 추진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 도심치안, 주요행사 보안 프로젝트 참여 	재해 복구·예방, 도심치안 사업 참여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자동차부품 분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7년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1위 기록,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 순정품 판매뿐만 아니라 자체생산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중고차 수입규제가 시작된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당시 판매된 신차 및 중고차 판매로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중고차 부가세 기존 30%→10% 인하 및 신차 부가세 10%p 인상 법령 발표
 - * 자동차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이용, 부품수요 예측필요
 - 조달이 어려운 순정부품뿐만이 아닌 기타 자체 생산부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 페루 전체 신차 판매량이 늘고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부품 조달의 공급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중고차 부가세 기존 30%→10% 인하 및 신차 부가세 10%p 인상 법령 발표
 - 중고차 부가세 인하 및 신차 부가세 인상 효과로 한국 중고차 수입률 상승 기대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유망품목) 페루 애프터마켓 시장은 주로 악세사리, 배터리, 윤활유, 첨가제 및 차량 보수 도구로 구성됨
 - 악세사리 :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공식 딜러 및 소매를 통해 지속적인 판매가 있음
 - 배터리 : 연간 약 1.4백만달러 규모의 판매가 있으며, ETNA와 Enerjet사가 현지 업체로는 가장 크고, 수입산 배터리 공급이 더욱 많음

나. 건설 / 광산 분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본격화
 - * 약 79.2억불의 재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장비/자재 수요가 증가될 듯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광산업 및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장비 수요가 증가
 - * 다양하고 큰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있어, 2천에서 3천개의 중장비 공급자가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가의 중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수요로 한국산 자재 및 중장비수요 증가
 - 재건사업에 이용할 자재를 양질의 제품으로 조달할 계획 발표
 - 재건사업 프로젝트의 직접수주보다는 자재 및 장비 공급을 우선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 : 보수/재건 60.1억불, 예방 16.9억불 등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양질의 자재 및 중장비 공급 및 확실한 A/S보장 수요를 공략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꾀하는 것이 중요함
 - 현지에서 유지/보수를 진행해줄 수 있는 협업 파트너 필요
- (유망품목) 중장비 기계뿐만 아니라 중장비용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의 국내기업의 진출 시도가 필요

사례분석: 중장비 부품 생산/수출업체 A사

-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여 페루로 수출. 해당 한국 생산법인인 연간 2백만불 가량 수출
- 관련 분야 페루의 對한국 수출은 감소세에 있으나 이는 광산업계의 불경기로 인한 전체 수입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 오히려 시장점유율은 늘고 있는 중
 - 페루 연 수입감소율 : -55.7%(2016), -20.7%(2017)
 - 페루내 한국제품 점유율 : 2.7%(2015) → 4.13%(2016) → 9.10%(2017)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韓수입증가율(2016))	對韓수입증가율(2017)
8429.52	중장비 부품	-32.2%	74.6%

- 비교우위: 구입한 제품에 대해 추후에도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A/S를 제공하고 있음.
 - Caterpillar 등과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이 아님에도 협업 파트너사 지정으로 업계의 신뢰도를 구축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를 찾는 것이 중요.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는 물론 이너써클(Inner Circle)이 엄연히 존재하는만큼,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가 있다면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약 분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5년 4월부터 한국이 17개 의료선진국 카테고리 분류되어 등록절차 및 시간이 단축
 - * 한국 제조 시설 시찰이 절차 중에 제외되어 절차가 6개월 이하로 단축
- 2017년 6월에는 우리나라 약전이 참고약전으로 등록되어 수출기간이 단축됨
 - * 3~6개월 등의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이 단축
- 급격한 기상이변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
 - * 한국 신약개발 및 제네릭 제품 등에 대한 바이어 관심도 상승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페루 내 중상류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약품이 글로벌 브랜드이며 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중하위계층은 제네릭 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임
- 등록절차 간소화로 수출시 필요한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등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국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가 현지업체 내에서 좋게 형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유망품목) 항암치료제가 페루 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가장 큼

라. 의료기기 분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5년 4월부터 한국이 17개 의료선진국 카테고리 분류되어 등록절차 및 시간이 단축
 - * 한국 제조 시설 시찰이 절차 중에 제외되어 절차가 6개월 이하로 단축
- 2017년 6월에는 우리나라 약전이 참고약전으로 등록되어 수출기간이 단축됨
 - * 3~6개월 등의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이 단축
-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높은 입지로 한국 기업 진출 용이
 - * 대페루 의료기기 수출이 2015-2017년 사이 100% 이상의 성장 기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對페루 의료기기 수출 2015-2017년 사이 100% 이상 성장 달성
 - 페루 의료기기 수출 규모가 2017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바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진출 블루오션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국 의료기기는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선진국(Country of High Surveillance)로 분류되어 있는 바, 제품 이미지 및 입지가 높기 때문에 제품 등록 절차 간소화 혹은 절차 삭제로 국내기업 진출이 용이함.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여 페루 및 인근국 진출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한 진출 전략으로 사료됨
- (유망품목) 의료기기 중 페루 내 가장 많이 수입되는 종류로서 엑스레이류, 기타 의료기기 및 고압멸균기/살균기가 꼽히고 우리 국내기업의 각 분야 진출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 바 더욱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함

마. 화장품 분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추진 본격화에 따라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 용이
 - * 동맹 내 기타국 등록 既 취득시 페루 내 등록 절차 간소화
- 對페루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2017년 시장규모도 전년 대비 4% 증가함
 - * 수입품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 선호도가 높은 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추진 본격화에 따라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 용이
 - 태평양동맹(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추진 본격화로, 동맹 내 타국 등록 보유시 별도 등록 불요 혹은 간소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태평양동맹에 따라 對페루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시장이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바 국내기업 진출시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유망품목) K-POP 등의 영향으로 입지가 높아진 국내 화장품은 주로 마스크팩 및 아이디어 화장품 상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위주로 진출을 꾀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임

3. 한-페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주요 인프라사업 발주 본격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부는 수처리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확대에 우선
- 전국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사업 중점 집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오데브레시’사 스캔들로 중단되었던 주요 인프라사업 발주 재개
 - 2017년부터 중남미를 강타했던 브라질 오데브레시(Odebrecht)사 부패스캔들로 쿠진 스키 등 페루 4명의 전직대통령이 연루되어 프로젝트가 중단 및 연기된 상황
 - 2018.3월 취임한 비스카라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2019년부터 교통, 수처리분야 등 인프라사업 추진 가속화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유망분야) 2018-2019년은 6개 주요 인프라사업(77.57억불)이 경제성장 주도 예상
 - 주요사업 : 리마 메트로 2호선 (53.46억불), 산마르틴(San Martin) 항만사업(2.49억불) 리마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국제 공항 확장사업(10.6억불), 마헤스 시게스(Majes Sigues II) 관개사업 (5.5억불), 살라베리(Salaverry) 항만 현대화 사업(2.75억불), 쿠스코 친체로공항 건설(6억불) 등
 - 기타사업 : 수처리 사업(티티카카 호수 사업, 리마 식수공급 사업 등)과 북부 및 리마 수도권 지역 위주로 병원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중점 추진
- (진출전략) 리마 메트로, 친체로 공항건설 등 대형사업 집중공략
 - 2018.10월 리마 메트로 3,4호선(85억불)사업 마스터플랜 참가중
 - * 2019년 구체화될 3,4호선 프로젝트 발주 예정
 - 2019년 쿠스코 친체로 공항건설(6억불) 발주 예정

나. 재해복구 재건사업 참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엘니뇨’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국가 역량 집중
 - * 2017년 상반기 60년만의 최악의 ‘엘니뇨’피해로 극심한 피해를 있음
- 2018-2019년 약 80억불의 복구사업 예산 배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북부지역 중심 재건사업 추진 : 엘니뇨 현상으로 2017년 초 큰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의 재건사업 중점 추진
 - 2018년 일부 예산 투입에 이어 2019년까지 14억불을 13개 주정부에 배정
- 지방정부에 배정된 예산의 약 60%는 도로, 학교 및 병원 등 인프라 복구, 36%는 재해 예방작업에 배정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사업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는 수십~수백만불 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발주될 계획임에 따라 동일 유형의 사업을 묶어 대규모의 사업으로 발주토록 발주처와 협의
- (유망분야) 건설 중장비 및 부속품, 건축 및 전기 자재 등

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통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부패문제가 최대 이슈화되면서 정부간계약(G2G) 방식 재조명
- 양국간 산업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요 공항 및 항만 건설 등 국가 아젠다사업 G2G계약으로 추진
 - 2019년초 쿠스코 친체로 공항신설 발주예정(6억불 규모)
 - * 판아메리칸 게임(2019.7.26.-8.11) 운영업체 기선정
- 조선, 항만 등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외국 정부차원의 참여 요청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1) 코트라-정부(대사관)-우리기업간 협조체제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 수주사례
 - * (방산) 2012.11월 KT-1 기본훈련기 20대(2억불), 다목적함 2척(2013-2018, 9천만불)
 - * (일반물자) 지능형 순찰차 3000대(2013-2016, 1.1억불)
 - 발주예정 : 2019년 유류수송함 2척(75백만불), 해군 호위함 6척(24억불) 등 다수

- (진출전략2) 통상산업협력 KSP사업 지원
 - 페루 조선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국영조선소가 계획하고 있는 조선소 시설 현대화 및 확장 사업 관련 KSP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수요 조사 지원
 - * (산업협력)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노하우 전수, 관련 산업 동반 발전 기대
 - * (진출유망분야) 향후 발주될 드라이독 확장 사업, 시설 구입 사업 참여
- (유망분야) 방위산업, 조선 등 기간산업, 물류유통, 보건 및 의약품 등

라. 도심치안 강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페루의 도심 치안이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
- 리마 판아메리칸 게임(2019.8월)을 앞두고 시설 및 인명 보안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 18회 리마 판아메리칸 게임(2019.7.26.~8.11) 개최 준비
 - 경기장, 선수촌 등 건물 인프라 사업은 발주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서비스 및 장비 납품 사업은 UNOPS(유엔 프로젝트 지원사무소)를 통해서 입찰
 - 보안 경비 분야 관련 긴급 구매 물품(드론, 보안장비) 구매
-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등으로 도심치안 지속 악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보안 및 경비분야, 스마트시티 등 우리 경쟁력 분야에 집중
- (유망분야) 스마트시티, 드론 및 안티드론, CCTV, 사이버보안 장비 등

마. 중남미 FTA체결 3국 공동마케팅 전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페루 FTA는 8년차의 심화단계 진입
- 칠레, 페루, 콜롬비아 FTA체결 3국 공동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페루 FTA는 2011.8월 발효이후 8년차 성숙단계 진입
- 페루는 칠레(2004.4월 발효), 콜롬비아(2016.7월 발효)와 더불어 중남미 정치경제 우등국으로 FTA체결 3국 시장진출 위한 공동전략 필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중남미 FTA 3국(칠레, 콜롬비아, 페루) 공동사업 개최
- 무역사절단 파견, 중남미 FTA 시장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등
- (유망분야) 보건의료, 건설인프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바. 완제품 수출의존형에 현지투자 중심으로 전환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PA(태평양동맹)의 본격제도 진입에 따라 역내 공동시장 진입을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필요
- 일본, 중국산과 경쟁심화로 완제품 수출 한계, M&A 및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진출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PA(태평양동맹)는 2030년까지 중남미에서 강력한 경제공동체로 발돋움위한 비전설정
- (비전) 역내 통합 강화, 글로벌화, 유대 강화, 시민화
-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 2013.7월 오퍼버 국가로 가입, 2018.7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신청
- 주요 수출품목의 중국, 일본과 경쟁심화
일본과는 승용차, 화물차, 타이어 제품, 중국과는 휴대폰, 가전, 화학제품류 등이 겹치고 승용차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페루는 동맹국중 가장 정치경제적 안정을 지속하고 있어 페루를 거점으로한 PA역내 진출 전략 필요
- 현지기업과 M&A,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 유망분야 투자진출
- (유망분야) 제조업, 농수산업, 관광, 광업, 교통 등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300490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7/US\$백만)	50.56	대한수입액('17/US\$백만)	0.35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제약 사립은 연간 약 290백만달러에 달하는 GDP를 창출하고 지난 10년간 페루 내 약국 체인점 성장이 활발한 등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힘 - 해당 HS CODE는 페루에서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허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국 제품의 경우 3-6개월이고 0%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진출에 좋은 여건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릭 의약품의 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공 기관 의약품 구매는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로서는 MINSA가 제1 바이어, ESSALUDI가 그 뒤를 이음 - 갈수록 많은 페루 제약회사가 바이오시밀러 항암치료제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음. 동 시장은 높은 수요와 특허 만료 등으로 인해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2017년 사이 동 분야 페루 내 최대 수출국 1위는 인도, 2위는 미국, 3위는 독일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특허기간만료되는 의약품의 제네릭제품과 백신,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 타진 요망 		
품목명 2	HS Code	870321	수입관세율(%)	0
중고차	수입액('17/US\$백만)	775.29	대한수입액('17/US\$백만)	185.65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내 중고차 부가세 면제 방안이 발표되어 중고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택시회사 등에서 한국 중고차 수입 기대 - 페루 내 신차 판매량이 2017년 기준 한국산 차량이 1위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추세가 중고차 시장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 매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고 가스 차량 수입 정책 기조 형성 - 이에 따른 현대 기아 중고 차량 수입률 증가 기대 - 신차 부가세 10%p 인상에 따라 신차 판매량 감소 예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값싼 중국산 차량의 수요 급증으로 한국산 신차 판매량이 2018년 감소 예상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환경보호 기조와 중국산 차량의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 진출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3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7/US\$백만)	117.58	대한수입액('17/US\$백만)	2.29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의료기기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커지고 있음 - 한국이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과 함께 의약품 위생선진국(Countries of High Surveillance)으로 선정된 이후 인증 등 발급절차 간소화에 따라 페루가 유망시장으로 부흥함.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나마와 함께 의료기기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남미 6대 시장 중 하나임 - 2017년 기준 총 600만개 규모의 의료기기 종류를 수입하고 있고 이 중 대형 고가 제품이 소형 의료기지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영국 등이며 특히 엑스레이 시장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균기 등 몇가지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는 DIGEMID의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진출하기 전 허가 취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페루 파트너 물색이 가장 주안점임 		

품목명 4	HS Code	843149	수입관세율(%)	0%
중장비 전자기기	수입액('17/US\$백만)	100.00	대한수입액('17/US\$백만)	3.27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품군은 세율도 없을뿐더러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 - 수출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시장 진입 기회 제공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수입이 25%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8% 회복하였음. 2018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할인가 등을 대거 적용해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 2017년에 전체 추세와 함께 26% 수출이 감소하였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2017년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었고 합하여 전체 점유율 52% 기록 - 중국의 경우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고품질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진출방안	중국에 상위권 수출 대역에 합류하고 있는 추세이나, 한국은 이에 맞서 고품질 A/S 등을 전략으로 삼아 진출해야함.		
품목명 5	HS Code	850710	수입관세율(%)	1.2%
자동차전지	수입액('17/US\$백만)	27.68	대한수입액('17/US\$백만)	6.0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내 한국 자동차 입지가 1위로 성장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전지 등 부속품에 대한 관심도 높음 - 일본, 중국 브랜드가 시장 내 입지를 잡는 가운데 한국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 높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국내외 브랜드 판매량을 통틀어 대략 연간 127만개 규모이고 페루 배터리 시장 가격은 브랜드, 모델 등에 따라 개당 약 69달러에서 110달러 이내로 책정되어 있음 - 배터리 127만개 시장 규모 기준 국산품 67만개, 수입품 60만개로 국산품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경쟁동향	주요 경쟁 국가는 콜롬비아이며, 한국은 2017년 수입 6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2위를 차지하였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자동차전지 도매시장은 대형 배터리 유통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공략해야함 - 독점 대리인이 없는 유통처를 적절히 발굴하는 것이 주요한 진출 전략임 		
품목명 6	HS Code	841920	수입관세율(%)	0%
의료용 살균기	수입액('17/US\$백만)	4.77	대한수입액('17/US\$백만)	0.19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의료기기 시장이 부흥하면서 덩달아 의료용 살균기 시장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음 - 관세율 0%, 위생 인증 불요 등 한국 기업 수출에 유리한 조건의 품목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기준 시장 규모가 4.77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3%의 성장세를 보였고 2017년의 성장은 지난 3년간 가장 큰 폭의 성장이었음 - 2017년 기준 한국은 전체 페루 의료용 살균기 시장 점유율 4%를 차지하며 전체 7위 기록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2017년 0.19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임 		
	경쟁동향	주요 경쟁 국가 기업은 오스트리아 Bosch사, 독일 Memmert사, 이탈리아 Levati사임		
	진출방안	2017년 수입 상승세가 지난 3년간 가장 컸으므로 시장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따라 2018년에도 시장 상승세를 전망할 수 있음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물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는 5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태평양동맹 등과 같이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 상품을 특혜조건하에 수출 -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에 접해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남미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 강력 추진하고 있어서 남미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페루 시장을 과점한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진입을 시도해야할 것으로 보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가 전세계 대다수 주요국들과 체결한 무역 및 투자협정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진출이 필수적 - 주 진출분야인 광업뿐만이 아니라 투자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유망분야로는 에너지 및 석유화학, 페루 주요산업인 농수산업, 제조업, 관광산업, 교통인프라 분야가 있음
플랜트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쿠친스키 신정부 100일 발표 당시 공공 서비스 확대 언급, 특히 전국민 대상 상하수 서비스 공급 확대를 최우선순위로 지목 - 2017년 3월 말 '엘니뇨' 기상이변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북부에서 식수 공급 이상 등으로 수처리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발표됨 - 무분별한 생활 하수 및 농목축업, 광업 폐수 방류로 농수 및 식수 품질 심각 우려 수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수처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성공적인 사업 성사는 드물며 정부에서는 타개책으로 규제·절차 혁파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예산 확보 난항으로 PPP 형태 사업으로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 - 현 정부는 세금납부대체사업(OPI)로 다수 수처리 사업 추진 시사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에 오래 전부터 진출해 온 스페인, 콜롬비아, 브라질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기업은 동일 또는 유사 언어·문화권에서 이미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은 장점이 있음
	진출방안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참여, 엔지니어링 또는 기기, 설비 납품 - 주정부 차원의 수요 파악,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 개입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목표로 PPP 및 OPI사업 참여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G to G	G to G 플랫폼 확대 사업	6월 / 페루 리마 및 볼리비아
2	프로젝트	페루 및 볼리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설명회	3월 / 페루 및 볼리비아
3	전략물자	2019 페루 방산 및 재난재해관리 전시회	5월 / 페루 리마
		제 2차 중남미 방산 수출 확대 추진 협의회	5월 / 페루 리마
		방산·보안 네트워킹 및 진출 지원 사업	11월 / 페루 리마
4	의료	2019 제약의료보건의료 한-페루 이니셔티브	9월 / 페루 리마
5	신재생	2019 신재생 에너지 중남미 로드쇼	10월 / 페루 리마
6	일반	페루·볼리비아 제2경제도시 지방상권개척 상담회	4월 / 페루 및 볼리비아

□ (G to G) G to G 플랫폼 확대 사업

- 사업배경 : 페루는 다양한 정부간 계약(G to G)의 기회있으며, 실제로 한국과 여러차례 이행 경험이 있음
 - * KT-1P훈련기(2012), 1,2차 스마트 순찰차(2012, 2015년), 다목적함(2013, 2018년)
 - 이를 기반으로 관할지인 볼리비아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개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개요 : 국내기업과의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건을 발굴하여, 국내기업과 현지 발주처와 연결
- 시기 및 장소 : 2019년 6월 / 페루 리마 및 볼리비아 La Paz, Santa Cruz

□ (프로젝트) 페루 및 볼리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설명회

- 사업배경 : 2018년 8월 24일, Piura주와 스마트시티 구축관련 MOU체결
 - 이외에도 페루 내 다양한 지역(San Isidro, Tacna, Caja Marca)에서 관심을 표명, 이 중 San Isidro는 G2G진행 가능여부 타진
 - * CCTV교체 계획으로 예산 1,000만불 책정
 - 볼리비아 Santa Cruz 상공회의소에서도 관심 표명
- 주요사업내용 : 관련 한국기업의 스마트시티 사업 설명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 2019년 3월 / 페루 리마, Tacna, Caja Marca 및 볼리비아 La Paz, Santa Cruz

□ (전략물자) 2019 페루 방산 및 재난재해관리 전시회(SITDEF 2019)

- 사업배경 : 매년 격년제로 운영이 되는 방산전시회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수요 다대
 - 2016년 5월 진행된 방산전시회에서 참가업체들이 호평을 받은 바 있음
- 주요사업내용 : 한국관 참가업체 및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세미나 및 상담 등)
 - 전시회에 이어 제 2차 중남미 방산수출확대회의 개최예정(5월 20 ~ 21일, 잠정)
 - * 2018년 8월말 1차 중남미 방산수출확대회의 개최(콜롬비아 보고타) : 중남미지역 방산 로드쇼
- 시기 및 장소 : 2019년 5월 16 ~ 19일 / 페루 리마 국방부

□ (전략물자) 제 2차 중남미 방산 수출 확대 추진 협의회 개최

- 사업배경 : 페루 방산전시회 연계, 협의회 효과를 극대화
- 주요사업내용 : 방산전시회 참가 기업들에게 네트워킹이 가능한 관련 발주처 및 인콰이어리 제공
- 시기 및 장소 : 2019년 5월 20 ~ 21일, 페루 Lima Swissotel

□ (전략물자) 방산·보안 네트워킹 및 진출 지원 사업

- 사업배경 : 페루 내 우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활용하여, 현지 방산 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용, 인콰이어리를 발굴하여 사업기회 모색
- 주요사업내용 : 정부 및 군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행사 진행하여 인콰이어리 발굴, 국내기업 전파
- 시기 및 장소 : 2019년 11월, 페루 Lima Swissotel

□ (의료) 2019 제약의료보건분야 한-페루 이니셔티브

- 사업 배경 : 한국의 의료분야 관련 선진국가 리스트에 등재와 한국 약전인정 등으로 페루 의료보건 시장 진출에 유리
- 주요사업내용 :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 및 포럼, 전시회 참가지원 등 활동 지원
- 시기 및 장소 : 2019. 9월 3~7일(잠정) / 페루 리마

□ (신재생에너지) 2019 신재생 에너지 중남미 로드쇼

- 사업배경 :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 지자체 선거 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어, 동분야 수요 증가 예상
- 주요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부터 기자재까지,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시기 및 장소 : 2018년 10월, 페루 리마

□ (수출초보/신시장개척기업) 페루·볼리비아 제2경제도시 지방상권개척 상담회

- 사업배경 : 페루 지방도시의 광산업 및 농업 분야와 볼리비아 Santa Cruz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
- 주요사업내용 : 무역관 직원들의 지방도시 및 관할지 방문을 통한 현지 상담 대형 및 필요시 화상상담 진행
- 시기 및 장소 : 2018년 4월 초(잠정) 페루 2선도시 및 볼리비아 Santa Cruz
- 참고사항 : 유망품목으로는 의료기기, 광산업 관련 품목, 자동차 부품, 생활소비재, 건축기자재, 기계부품류(밸브 등), 농업기계류 등이 대상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메리카 정상회담 (Cumbre Cooperativa de las Americas)	10.23-2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 13개국 정상회담(에콰도르 키토)	9.17-18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 의논
유엔총회	9.18	페루-콜롬비아 정상회담 예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Ancash, Arequipa, Huanco, La Libertad, Pasco 및 San Martin 지역 브로드밴드망 구축 사업	2018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
Jalacoa 광산 프로젝트	2018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
Colca 광산 프로젝트	2018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
Carabayllo-Chimbote-Trujillo 구간 송전선 및 Trujillo 북부지구 500kV 가변무효전력보상기 용량 강화 사업	2018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
페루 중남부 지역 천연가스 사용 대중화 사업	2018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
Titicaca호 오수처리 시스템 사업	2018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Sitdef 2019	2019.05.16-19	Cuartel General del Ejército del Perú. San Borja, Lima, 격년 개최
Perumin 33 Convencion Minera	2019.09.16-20	Universidad Nacional de San Agustín, 격년 개최
Gol Expo Perú 2018	2019.09.25-26	Centro de Convenciones María Angola
Expotextil Perú 2018	2019.11.08-11	Centro de Exhibiciones Convenciones Jockey Plaza
Expo Saneamiento Perú 2018	2019.11.14-16	La Molina 농업대학교
Expo Perú Technology Innovation Lima 2018	2019.11.21-23	Centro de Convenciones María Angola

담당자

리마무역관 김철희

Tel (+51) 1-250-0020

직책 관장

Email chkim0650@kotra.or.kr

리마무역관 김백진

Tel (+51) 1-250-0020

직책 과장

Email baekjinkim@kotra.or.kr

리마무역관 김홍지

Tel (+51) 1-250-0020

직책 과장

Email hj.kim@kotra.or.kr

리마무역관 박지하

Tel (+51) 1-250-0020

직책 팀장

Email parkjiha777@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페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